

**패션전공 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sup>+</sup>**

- 경기권 2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

**홍 성 순**

김포대학교 패션디자인과

**The Effect of Understanding their Major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Indecision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 Focus on the Community College Students in Gyeongido -

**Hong Sungsun**

Dept. of Fashion Design, Kimpo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 influence on the effect of understanding their major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indecision of the community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and is intended to provide useful resources o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of students through this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tudy, 349 college students in Gyeongido were selected for the questionnaires for the understanding major,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s survey. The survey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12.0 and this was followed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indecision factors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were extracted 5 valuables that were 'insufficiencies vocational information', 'an undeceivable character', 'the lack of self well-defined', 'the lack of needs for job' and 'external barrier for the career'. Second, the subordinate valuables of understanding major which is 'social cognition for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major course', and

---

<sup>+</sup> 이 논문은 2012년도 김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atisfaction on the major skill', had positive effect on career self-efficacy. Third, understanding of major and the subordinate valuables of career self-efficacy which is 'making goal for the career', 'career information', 'career plan for the future', 'alternative searching', and 'overcoming difficulties' had negative effect on career indecision. Forth, understanding major and career self-efficacy had mediated in career indecision.

**Key Words** : understanding major(전공인식), career self-efficacy(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areer indecision(진로미결정), career education(진로교육)

## I. 서론

청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수립하여 생활전반에서 독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므로 진로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사회적 인식 또는 입시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하기도 한다.<sup>1)</sup> 특히 직업을 일찍 결정하고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전문대학생들은 짧은 기간 내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진로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취업정보, 구인 및 구직 안내, 취업관련 세미나 또는 개인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실제로 전문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신규 대졸자들은 산업구조 상의 변화 및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1년 이내 평균 퇴사율은 43%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언급한 조기퇴사의 원인으로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인내심 부족을 지적한 것<sup>3)</sup>은 가정, 사회 및 학교에서의 심층적인 진로교육이 필요로 함을 지적해 주고 있다.

한편, 교육수요의 감소 및 대학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시책과 함께 대학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고등교육기관의 건강DB 연계취업률과 재학생등록률 등이 교육수요자들의 대학에 대한 평가로 이어짐과 동시에 대학구조조정이 대내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취업을 향상과 중도탈락률을 방지하는 공격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문대

학 본연의 의무인 특성화된 전문교육과 함께 진로와 사회진출에 대한 차세대 국가 인재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심층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패션·의류·의상학 분야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패션분야 교육 특성화 개발, 직무능력관련 연구, 진로에 관한 연구 및 전공 관련 자격증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권 2년제 전문대학의 패션·의류·의상 전공대학생들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고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전공인식

진로인식은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직업의 가치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여러 직업에 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이해 및 진로 개발에 필요한 기능, 학력, 지식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개인이 진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인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이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학생들의 진로계획 뿐만 아니라 진로인식도 자아개념, 가정환경, 가치관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인식이 전공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sup>5)</sup>

전공인식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상태, 태도, 가치, 신념 및 욕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공인식을 패션·의류·의상에 대한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과 패션(의상, 의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까지 인지하여 패션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즉, 교과만족인식, 실습내용인식 및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교과만족인식은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 교육내용의 인식 및 만족도를 포함한다. 실습내용인식은 이론과 실기시간의 적절한 운영, 실습도구의 준비, 적절한 양의 실습과 시험이 개인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패션 전공에 대한 자부심, 사회생활의 유리한 점 등이 포함된다.

전공인식 및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송혜원(2004)<sup>6)</sup>은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졸업 후 진로라고 하였으며 전공의 기대정도와 일치정도의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에서 '취업의 용이성', '직업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의 용이성'이라고 하였다. 임용수(1993)<sup>7)</sup>는 전공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하면서도 지속성 있는 진로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김혜주(2007)<sup>8)</sup>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직업을 결정하고 직업에 관련된 과제수행을 위한 자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장문영(2005)<sup>9)</sup>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교과만족 및 학교와 사람들의 관계만족으로 교과만족도를 나누어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공에 대한 흥미도와 교과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이예영(2010)<sup>10)</sup>은 의류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에서는 남학생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패션 비관련 직종의 진로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낮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대안적 진로를 고려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인식과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한 것들로 하혜숙(2000)<sup>11)</sup>은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전공만족도와 함께 대학의 명성과 지위 또한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전공인식도는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형성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진로를 설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공인식도는 진로결정 및 대학생활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써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다.<sup>12)</sup>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전공 선택,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추측할 수 있으며,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업과 행동에 자기효능감을 적용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덜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해 주며, 진로를 결정해야 할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심리적 기제이다. 따라서 청년들로 하여금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과 동시에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더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 혹은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다.<sup>14)</sup>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직업적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Occupational career self-efficacy scale, Betz & Hackett,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Betz & Taylor,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SF, Betz, 1996)이 있는데,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는 “교육요구”, “직업요구” 등 직업적 진로와 관련된 요구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은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 수립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탐색행동, 진로태도 등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희영(1999)<sup>16)</sup>은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의사결정 과제 혹은 행동을 회피하는 반면에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의사결정 과제 혹은 행동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기영락(2010)<sup>17)</sup>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들은 성별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이 높았고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을 밝혀냈다.

한편, 이기학, 이학주(2000)<sup>18)</sup>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요인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많이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Blustein(198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수준이 개인이 진로에 갖는 태도, 특히 가장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강력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론이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인지적 요인보다는 정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sup>19)</sup>

### 3.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이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이 겪는 문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함, 가치관의 혼란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와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진로미결정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들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고려하여 진로미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유형들이 규명되어야 한다.<sup>20)</sup>

또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를 방해하는 특성에 관한 진로미결정 연구는 주로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학업성적, 학년, 계열, 사회계층 등과 같이 사회문화적인 변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이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매우 복합적인 과정을 갖고 있으므로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 변인도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sup>21)</sup>

진로미결정 측정도구로 외적장애요인을 포함한 탁진국, 이기학(2001)<sup>22)</sup>의 ‘한국 진로미결정 척도’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수준이 전체 대학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직업결정척도 및 기준을 개발하려는 목적 하에 Osipow, Carney, Winer, Yanico, Koschier(1987)의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진로미결정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및 외적장애의 개인의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특정행동수행과 행동변화를 중재하는 요인으로도 역할을 한다. (Lenz, Brown & Hackett, 199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부적인 관계를 증명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중요변수임을 밝혀주었다. 김은영(2007), 유지선(2004), 한주옥(2004)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sup>23)</sup>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진로미결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조절작용으로 인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의 차원을 규명한다.

둘째,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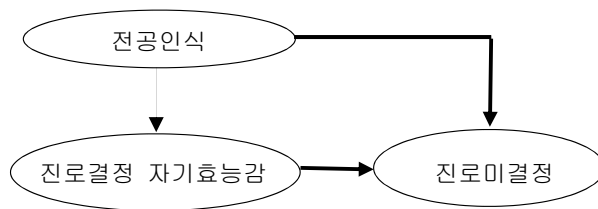
넷째,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권 2년제 전문대학의 패션·의상·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표본 추출방법 중에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2년 4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도 소재 J대학, K대학, O대학, S대학, Y대학의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4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1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49명이었다. 연구대상자는 남자(26.4%), 여자(73.6%)이었으며, 1학년(43.8%), 2학년(56.2%), 연령대는 18세~20세(79.4%), 21세~24세(19.2%), 25세 이상(1.4%)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전공인식은 김혜주(2007), 심은숙(2003) 및 남진선(2011)<sup>24)</sup>의 진로인식을 전공인식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11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이학주, 이기학(2000)<sup>25)</sup>의 진로성숙모델에서 자기효능감 척도 20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미결정은 탁진국,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규명한 “한국 진로미결정 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인 22문항<sup>26)</sup>을 수정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 및 진로계획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준거집단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1>연구모형

#### 4. 분석방법

본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독립변수, 종속변수들의 일반적 경향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았다.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인 전공인식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종속변수인 진로미결정수준의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희망과 진로계획 시 준거집단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희망으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전공과 관련된 취업이

59.9%로 나타났으며, 진로계획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집단으로 교수나 교사가 42.7%로 나타났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33.2%로 나타났다. 적은 수이지만 기타(3.2%)에 자술 응답한 것으로 인터넷의 지식 및 정보공유를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패션 전공 전문대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 관련 취업을 희망하고 진로결정 준거집단으로 교수나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 전문대학에서 전공 관련 교수들의 역할이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의 교육에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1)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을 파악하고 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유치가 1이상인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2.89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Cronbach' alpha값은 .75, .80와 .61로 나타났다.

요인1은 학과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외적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였다. 요인2는 교육과정,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흥

<표 1> 졸업 후 진로희망 및 진로결정 시 준거집단

N=349

진로희망	전공 관련 취업		전공 관련 창업		비전공 관련 취업 및 창업		상급학교 진학		잘 모르겠다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9	59.9	38	10.9	69	19.8	0	0	29	8.3	4	1.1
진로계획 준거집단	스스로 결정		교수 및 교사		부모님		선배 및 지인		친구 및 동료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16	33.2	146	42.7	56	16.0	8	2.3	9	2.6	11	3.2

미와 만족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교과만족인식이라 명명하였다. 요인3은 실기학습내용에 대한 평가 및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실습내용인식이라 하였다. 본 요인분석 결과는 남진선(2011)<sup>27)</sup>연구의 전공인식 요인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유치 1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총 설명력은 60.3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Cronbach' alpha값은 .84, .74, .74, .69와 -.50로 나타났다.

요인1은 관심과 회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이를 목표설정이라 하였다. 요인2는 전공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기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직업정보라 명하였다. 요인3은 관심분

야와 진로에 대한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미래계획이라 하였다. 요인4는 진로와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진로의 바꾸거나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안추구라고 하였다. 요인5는 진로결정 후의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문제해결이라 하였다.

3)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유치 1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5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5.32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Cronbach' alpha값은 .81, .75, .86, .75, .70로 나타났다. 요인1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기 못하는 원인이 충분한 직업정보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정보부족이라 명하였다. 요인2는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며 우유부단한 심리적인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우유부단함이라 하였다. 요인3

<표 2> 전공인식의 요인분석

N=349

요인	전공인식	요인값	고유치	설명력	누적설명력	신뢰도
사회적 인식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830	4.384	39.85	39.85	.75
	부모님은 내가 패션(의류, 의상)을 전공한 것에 대해 떳떳하게 말할 것이다.	.778				
	우리 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740				
교과 만족 인식	교육과정의 교과목 범위와 시수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750	1.710	15.55	55.40	.80
	나는 전공 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가 있다.	.655				
	전공 공부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617				
	학과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603				
	나는 전공 학과에 대해 만족한다.	.576				
실습 내용 인식	전공 실습에 대한 실습도구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793	1.117	7.43	62.83	.61
	전공 실기 과목은 개인의 요구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 학습하도록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712				
	현행 교과과정의 이론시간과 실기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다.	.480				

<표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N=349

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값	고유치	설명력	누적 설명력	신뢰도
목표 설정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779	5.241	27.58	27.58	.84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769				
	선택 가능한 여러 전공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745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740				
	직업 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734				
직업 정보	향후 10년간의 직업에 대한 고용경향을 알 수 있다.	.749	2.097	11.04	38.62	.74
	전공과 관련된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739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연봉(월급)을 알아낼 수 있다.	.730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교과 과정들을 알 수 있다.	.636				
미래 계획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748	1.804	9.50	48.12	.74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656				
	취업 면접과 관련된 절차를 잘 수행할 수 있다.	.645				
	힘든 상황에서도 전공이나 진로 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82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509				
대안 추구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792	1.313	6.91	55.03	.69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784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29				
문제 해결	진로 결정 후, 일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747	1.003	5.29	60.31	-.50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취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67				

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단점 및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이를 자기명확성부족이라 하였다. 요인4는 진로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진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필요성인식부족이라 하였다. 요인5는 주변의 기대와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요구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내용으로 이를 외적장애라 하였다.

4)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는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각 변수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간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전공인식 및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



<표 4>진로미결정의 요인분석

N=349

요인	진로미결정수준	요인값	고유치	설명력	누적 설명력	신뢰도
직업 정보 부족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757	5.922	32.90	32.90	.81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752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730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639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636				
우유 부단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754	1.864	10.35	43.26	.75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739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647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570				
자기 명확성 부족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790	1.603	8.91	52.16	.86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764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687				
필요성 인식 부족	현재로서는 직업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831	1.338	7.43	59.60	.75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807				
	미래의 직업을 현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693				
외적 장애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865	1.030	5.72	65.32	.70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854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564				

를 나타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목표설정과 미래계획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을 나타냈으며, 진로미결정의 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인식부족 및 외적장애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공에 대한 인식 중 교과만족인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중 목표설정과 미래계획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을 나타냈으나,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부족, 우유부단함, 자기명확성부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전공에 대한 실습내용인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직업정보와 문제해결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을 보였고, 진로미결정수준의 요인 중 직업정보부족만이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목표설정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함과 자기명확성부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업정보는 진로미결정의 요인 중 직업정보부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외적장애와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미래계획은 진로미결정수준의 모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중 대안추구는 진로미결정의

<표 5>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수준				
	사회적 인식	교과만족 인식	실습내용 인식	목표설정	직업정보	미래계획	대안추구	문제해결	직업부족	우유부단함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	외적장애
전공 인식	사회적 인식	1											
	교과만족 인식	.000	1										
	실습내용 인식	.000	.000	1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설정	<b>.423**</b>	<b>.309**</b>	.021	1								
	직업정보	-.062	.070	<b>.231**</b>	.000	1							
	미래계획	<b>.275**</b>	<b>.124*</b>	.072	.000	.000	1						
	대안추구	-.027	-.043	-.023	.000	.000	.000	1					
	문제해결	-.093	.105	<b>.164**</b>	.000	.000	.000	.000	1				
진로 미결정	직업정보 부족	-.013	<b>-.118*</b>	<b>-.279**</b>	-.064	<b>-.384**</b>	<b>-.208**</b>	.004	<b>-.202**</b>	1			
	우유 부단함	-.085	<b>-.129*</b>	.000	<b>-.121*</b>	-.023	<b>-.226**</b>	-.012	<b>-.380**</b>	.000	1		
	자기명확성부족	<b>-.263**</b>	<b>-.166**</b>	.020	<b>-.371**</b>	.091	<b>-.186**</b>	<b>.111*</b>	-.058	.000	.000	1	
	필요성인식 부족	<b>-.150**</b>	-.055	.054	-.071	.017	<b>-.226**</b>	.030	.092	.000	.000	.000	1
	외적장애	<b>-.323**</b>	-.079	-.002	-.080	<b>.204**</b>	<b>-.118*</b>	.075	.049	.000	.000	.000	.000

\*\*P<.01 \*P<.05

요인 중 자기명확성부족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 중 문제해결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부족과 우유부단함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3.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진로미결정에 단일 독립변수인 전공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1%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단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2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독립변수인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미결정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고,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6.5%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은 낮아져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결과는 장문영(2005)<sup>28)</sup>과 이민선 외(2010)<sup>29)</sup>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한편, 종속변수인 진로미결정과 독립변수인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전공인식과 자기효능감의 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sup>30)</sup>, 3단계 모형에서 수정된 R<sup>2</sup>에 변화량이 보였다. 1모형은 17.9%, 2모형은 26.1%, 3모형은 28.8%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며, F변화량에 따른 유의확률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패션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각각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공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상호 조절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4. 전공인식 요인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인식의 3개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교과만족인식, 실습내용인식을 독립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인식 중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이 목표설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7.6%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의 표준화계수(β)값은 .423과 .349로 나타나 진로목표설정 자기효능감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패션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도가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가 있으며,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인식 중 실습내용인식정도만이 표준화계수(β)값이 .231로 직업정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력은 6.2%로 나타났다. 패션전공에 대한 실습내용인식도가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을 위한 정보를 찾고 직업에 대한 향후의 비전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인식 중 사회적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은 미래계획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설명력은 9.6%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의 표준화계수 (β)값은 .275와 .124이었다. 대학생들의 패션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도와 교과만족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진로 및 직업과 자신의

<표 6>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N=349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B)	SE B	표준계수(β)	t값	P value				
진로 미결정	상수	4.076	.179		22.834	.000				
	전공인식	-.455	.05	<b>-.425</b>	<b>-8.756</b>	.000				
	R <sup>2</sup> =.181, F=76.674*** (P<.001)									
	상수	4.425	.19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01	.062	<b>-.461</b>	<b>-9.685</b>	.000				
	R <sup>2</sup> =.213, F=93.803*** (P<.001)									
	상수	4.849	.209		23.180	.000				
	전공인식	-.281	.057	<b>-.262</b>	<b>-4.960</b>	.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34	.069	<b>-.333</b>	<b>-6.292</b>	.000				
	R <sup>2</sup> =.265, F=62.394*** (P<.001)									
독립변수 의 조절효과	모형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변화량				
						R <sup>2</sup>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 2	유의확률 F변화량
	1	.425	.181	<b>.179</b>	.5263	.181	76.674	1	347	.000
	2	.515	.265	<b>.261</b>	.4993	.084	39.587	1	346	.000
3	.543	.295	<b>.288</b>	.4899	.029	14.411	1	345	.000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인식의 하위요인은 진로 대안추구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불만족 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개인의 소양과 능력은 전공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인식 중 교과만족인식과 실습내용인식은 진로를 위한 문제해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교과만족인식과 실습내용인식의 표준화계수 β값은 .105와 .164이었다. 대학생들의 패션전공에 대한 교

과만족인식정도와 실습내용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위한 문제해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5. 전공인식 요인들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인식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교과만족인식, 실습내용인식을 독립변수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수

<표 7> 전공인식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49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독립변수 (전공인식)	R <sup>2</sup>	비표준화계수(B)	표준계수(β)	표준오차	t값	F값
목표설정	상수	<b>.276</b>	.090		.046	.000	<b>43.738***</b>
	사회적 인식		.423	<b>.423</b>	.046	<b>9.241***</b>	
	교과만족인식		.309	<b>.309</b>	.046	<b>6.754***</b>	
	실습내용인식		.111	.021	.046	.405	
직업정보	상수	<b>.062</b>	.102		.052	.000	<b>7.605***</b>
	사회적 인식		-.165	-.062	.052	-1.191	
	교과만족인식		.172	.070	.052	1.334	
	실습내용인식		.231	<b>.231</b>	.052	<b>4.429***</b>	
미래계획	상수	<b>.096</b>	-.101		.051	.000	<b>12.215***</b>
	사회적 인식		.275	<b>.275</b>	.051	<b>5.371***</b>	
	교과만족인식		.124	<b>.124</b>	.051	<b>2.415*</b>	
	실습내용인식		.072	.072	.051	1.401	
대안추구	상수	<b>.003</b>	-.106		.054	.000	0.363
	사회적 인식		-.027	-.027	.054	-.407	
	교과만족인식		-.043	-.043	.054	-.807	
	실습내용인식		-.436	-.436	.054	-.436	
문제해결	상수	<b>.047</b>	-.103		.052	.000	<b>5.662***</b>
	사회적 인식		-.093	-.093	.053	-1.761	
	교과만족인식		.105	<b>.105</b>	.053	<b>1.996*</b>	
	실습내용인식		.164	<b>.164</b>	.053	<b>3.128**</b>	

\*\*\* P<.001

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인식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인식 중 실습내용인식은 직업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설명력은 9.2%로 나타났다. 실습내용인식의 표준화계수 ( $\beta$ )값은 -.272이었다. 패션전공에 대한 실습내용인식이 높을수록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경향은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전공실습내용 및 학습을 통해 패션

관련 직업과 진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교과만족인식은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과만족인식의 표준화계수( $\beta$ )값 -.129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패션전공에 대한 교과만족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은 자기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부적(-)

<표 8> 전공인식 하위요인들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N=349

종속변수 (진로미결정)	독립변수 (전공인식)	R <sup>2</sup>	비표준화계수 (B)	표준계수 ( $\beta$ )	표준오차	t값	F값
직업정보 부족	상수	<b>.092</b>	-7.701E-1		.051	.000	<b>11.625***</b>
	사회적 인식		-1.337E-0	-.013	.051	-.261	
	교과만족인식		-.118	-.118	.051	-2.301	
	<b>실습내용인식</b>		-.279	<b>-.279</b>	.051	<b>-5.43</b>	
우유부단함	상수	<b>.024</b>	-9.040E-1		.053	.000	<b>2.814*</b>
	사회적 인식		-8.541E-0	-.085	.053	-1.606	
	<b>교과만족인식</b>		-.129	<b>-.129</b>	.053	<b>-2.422*</b>	
	실습내용인식		3.703E-0	.000	.053	.007	
자기명확성 부족	상수	<b>.097</b>	-1.917E-1		.051	.000	<b>12.382***</b>
	<b>사회적 인식</b>		-.263	<b>-.263</b>	.051	<b>-5.139***</b>	
	<b>교과만족인식</b>		-.166	<b>-.166</b>	.051	<b>-3.25***</b>	
	실습내용인식		2.049E-0	.020	.051	.400	
필요성인식 부족	상수	<b>.028</b>	1.714E-1		.053	.000	<b>3.359*</b>
	<b>사회적 인식</b>		-.150	<b>-.150</b>	.053	<b>-2.822**</b>	
	교과만족인식		-5.470E-0	-.055	.053	-1.03	
	실습내용인식		5.444E-0	.054	.053	1.02	
외적장애	상수	<b>.110</b>	1.723E-1		.051	.000	<b>14.261***</b>
	<b>사회적 인식</b>		-.323	<b>-.323</b>	.051	<b>-6.353***</b>	
	교과만족인식		-7.904E-0	-.079	.051	-1.557	
	실습내용인식		-2.406E-0	-.002	.051	-.047	

\*P<.05,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9.7%로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의 표준화계수( $\beta$ )값  $-.126$ 과  $-.166$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패션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사회적 만족도 등의 사회적 인식도와 교과만족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장단점 및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필요성인식 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의 표준화계수( $\beta$ )값  $-.150$ 이었으며 회귀값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인식은 외적장애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의 표준화계수( $\beta$ )값  $-.323$ 으로 회귀값의 설명력은 11.0%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패션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사회적 만족도 등의 사회적 인식도가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변의 기대와 준거집단과의 사회적요구 불일치라는 외적장애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 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들이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인 목표설정, 직업정보, 미래계획, 대안추구, 문제해결을 독립변수로 진로미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표 9>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중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이 직업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23.6%을 보였다.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표준화계수( $\beta$ )값은  $-.384$ ,  $-.208$ ,  $-.202$ 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직업정보인식정도와 진로와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의식 및 진로에 직면한 문제해결의식이 높을수록 직업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은 낮아져 패션관련 직업에 관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요인 중 목표설정, 미래계획 및 문제해결이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계수( $\beta$ )값은  $-.121$ ,  $-.226$ ,  $-.380$ 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21.1%를 나타냈다.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정도,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의식과 문제해결의식이 높을수록 우유부단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진로결정과정에서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에 기초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패션관련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의식, 미래계획정도 및 진로에 대한 문제해결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와 더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목표설정 및 미래계획 효능감은 자기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대안추구는 진로미결정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 미래계획, 대안추구의 표준화계수( $\beta$ )값  $-.371$ ,  $-.189$ ,  $.111$ 로 회귀분석식의 설명력은 19.7%을 보였다.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의식과 미래계획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장단점 및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안추구성향은 전공 및 진로에 대해 만족이 낮은 경우 선택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성향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및 관심에 대한 명확한 자기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요인 중 미래계획만이 필요성인식 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계획의 표준화계수( $\beta$ )값은  $-.226$ 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6.6%을 나타냈다. 패션전공 대학생들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의식이 높아질수록 진로와 직업의 필요성인식부족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직

<표 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N=349

종속변수 (진로미결정)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R <sup>2</sup>	비표준화계수 (B)	표준계수 (β)	표준오차	t값	F값
직업정보 부족	상수	.236	-5.641E-1		.047	.000	21.134***
	목표설정		-6.355E-0	-.064	.047	-1.346	
	직업정보		-.384	<b>-.384</b>	.047	<b>-8.127***</b>	
	미래계획		-.208	<b>-.208</b>	.047	<b>-4.410***</b>	
	대안추구		4.355E-0	.004	.047	.092	
	문제해결		-.202	<b>-.202</b>	.047	<b>-4.285***</b>	
우유부단함	상수	.211	3.264E-1		.048	.000	18.362***
	목표설정		-.121	<b>-.121</b>	.048	<b>-2.531*</b>	
	직업정보		-2.256E-0	-.023	.048	-.470	
	미래계획		-.226	<b>-.226</b>	.048	<b>-4.720***</b>	
	대안추구		-1.172E-0	-.012	.048	-.244	
	문제해결		-.380	<b>-.380</b>	.048	<b>-7.928***</b>	
자기명확성 부족	상수	.197	-2.367E-1		.048	.000	16.878***
	목표설정		-.371	<b>-.371</b>	.048	<b>-7.671***</b>	
	직업정보		9.060E-0	.091	.048	1.873	
	미래계획		-.189	<b>-.189</b>	.048	<b>-3.917***</b>	
	대안추구		.111	<b>.111</b>	.048	<b>2.299**</b>	
	문제해결		-5.821E-0	-.058	.048	-1.203	
필요성인식 부족	상수	.066	3.955E-1		.052	.000	4.818***
	목표설정		-7.057E-0	-.071	.052	-1.352	
	직업정보		1.670E-0	.017	.052	.320	
	미래계획		-.226	<b>-.226</b>	.052	<b>-4.328***</b>	
	대안추구		2.957E-0	.030	.052	.566	
	문제해결		9.202E-0	.092	.052	1.763	
외적장애	상수	.070	-2.710E-1		.052	.000	5.146***
	목표설정		-7.970E-0	-.080	.052	-1.531	
	직업정보		.204	<b>.204</b>	.052	<b>3.917***</b>	
	미래계획		-.118	<b>-.118</b>	.052	<b>-2.267**</b>	
	대안추구		7.452E-0	.075	.052	1.431	
	문제해결		4.855E-0	.049	.052	.932	

\*\*\*P<.001

업정보인식은 외적장애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정적(+ )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래계획은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7.0%로 나타났다. 직업정보인식의 표준화계수( $\beta$ )값은 .204로 나타났고 미래계획의 표준화계수( $\beta$ )값은 -.118로 나타났다.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직업 및 진로정보인식도가 높을수록 자신과 부모, 가족 간의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외적장애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은 높아지고, 반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미래를 위한 계획정도가 높을수록 외적장애로 인한 진로미결정수준은 낮아져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안과 혼돈을 조절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차원을 규명하고, 전공인식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전공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을 요인분석하여 전공인식에는 사회적 인식, 교과만족인식, 실습내용인식 3개의 하위요인이 규명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설정, 직업정보, 미래계획, 대안추구 및 문제해결의 5개 하위요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은 직업정보부족, 우유부단함,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 외적장애의 5개로 분류되었다.

전문대학생들은 패션 전공인식도 중 사회적 인식과 교과만족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가 있으며,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실습내용인식도가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정보를 찾고자 하는 성향과 직업에

대한 향후의 비전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하는 성향이 높았으며 진로결정을 위한 문제해결의식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의 3개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전공에 대한 실습내용인식이 높을수록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경향은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전공실습내용 및 학습을 통해 패션관련 직업과 진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내용과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집중하면 실기능력향상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전문대학생들은 패션전공에 대한 교과만족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우유부단함 및 자기명확성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패션전공의 전반적인 교과내용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관심 및 적성을 파악하게 하고 교과에 대한 만족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여 교육내용의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편, 대학생들은 패션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 및 외적장애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패션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사회적 만족도 등의 사회적 인식도가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은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 및 주변의 반대와 갈등 등의 외적장애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목표설정, 직업정보, 미래계획, 대안추구 및 문제해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개 하위요인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정보인식정도와 진로에 대한 미래계획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에 직면한 문제해결의식이 높을수록 직업정보부족에서 기인한 진로미결정수준이 낮게 나타나 패션관련 직업에 관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인식과 진로에 대한 미래계



획정도 및 진로에 대한 문제해결의식이 높을수록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수준과 자기명확성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패션관련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 의식, 미래계획 정도 및 진로에 대한 문제해결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와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요성인식부족요인에 기인한 진로미결정에는 자기효능감 중 미래계획의식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정도가 낮을수록 직업 및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인식은 외적장애로 인한 진로미결정에 정적(+ ) 영향력을 미쳤으나, 미래계획 효능감은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진로에 대한 직업정보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미래계획정도가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과 부모, 가족간의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외적장애요인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의 예측변수가 됨을 증명하였다.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이 진로미결정수준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정도도 파악하였다. 그러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검증과 전문대학보다 교육기간이 긴 4년제 대학의 패션전공 대학생들과 비교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패션·의상·의류전공 전문대학생들은 주로 패션전공 관련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였으며, 진로에 도움을 요청할 집단으로 교수나 교사를 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학은 전공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심층적인 진로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1) 이민선 외(2010),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

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 회지*, 34(11), pp.1870-1871.

2) 이영대, 장석민, 이양구, 정윤경(2000), “진로정보망 탑재용 진로정보 콘텐츠 개발 연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78-79.

3)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 43%, 원인은?”, (2012.03.05),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12. 05. 03, 자료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cleid=201203051208591&code=9204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cleid=201203051208591&code=920401)

4) 설재풍(2001),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발달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2-23.

5) 남진선(2011), “고등학생의 전공인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24.

6) 송혜원(2004), “외식 조리 관련 전공 선택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0-55.

7)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논문집*, 9(1), pp. 107-129.

8) 김혜주(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9-42.

9) 장문영(2005),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29.

10) 이민선 외, op.cit., pp.1873-1877.

11) 하혜숙(2000),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4-71.

12) 김정은(2007), “남·여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3-14.

13) 조성연, 문미란(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4), pp.732-733.

14) 이광자(2004),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

- 과의 관계 연구 -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91-96.
- 15) 김현정(2011),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 진로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25.
- 16) 이희영(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 역할”, *한국심리학회-상담 및 심리치료*, 11(2), pp.255-259.
- 17) 기영락(2011),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8-61.
- 18) 이학주, 이기학(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2(1), pp.127-136.
- 19)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흥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18.
- 20) 김은영(2010),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1), pp.81-82.
- 21) 이지영(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과 결과 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38.
- 22)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1), pp.172-177.
- 23) 김은영, op.cit., pp.83-84
- 24) 남진선, op.cit., pp.46-50.
- 25) 이학주, 이기학, op.cit., pp.127-136.
- 26) 탁진국, 이기학, op.cit., pp.167-180.
- 27) 남진선, op.cit., pp.46-48.
- 28) 장문영, op.cit., pp.27-37.
- 29) 이민선 외, op.cit., pp.1876-1878.
- 30) 송지준(2011),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pp.180-189.
- 
- 접수일(2012년 7월 8일),  
수정일(1차 : 2012년 7월 30일, 2차 : 8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20일)